

野, '尹, 발언부인'에 "장관해임건의" 공세

尹, '사적발언 논란'에 "사실과 다른 보도" 해명 박홍근 "尹, 언론검박...적반하장식 발언 이어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발언 논란'에 "언론을 검박하며 적반하장식 발언을 이어간다. 오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내일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를 취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감정적으로 말하기보다 (정확히 어떤 발언을 한 것인지) 확인 후 입장을 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은 국민은 대통령 진술한 사과를 기대했지만 대국민 사과는 끝내 없었다"라며 "대신 조금 전 약속 문답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 훼손하는 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기막힌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 스스로 논란이 된 발언을 솔직히 해명하고 국민께 사과부터 하길 바란다"라며 "민주당은 대통령 실언에 대해 정쟁할 의사가 추호도 없다. 오히려 윤 대통령과 여당이 나서 국민 정력을 시험하며 사슴을 말아라 우기는 행태를 반복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순방의 총책임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김태호 안보실 제1차장,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 외교·안보 참사 트로이카를 전면 교체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만약 오늘까지도 결단 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외교 정책을 바로잡기 위

해 내일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며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는 여당이라면 반이성적 총성 경쟁에 몰두할 게 아니라, 외교·안보 라인 문책과 전면 교체를 야당에 앞서 요구하는 게 순리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대신 대국민 우롱, 호도를 했다"라며 "말한 윤 대통령의 입이 문제인가, 귀로 듣는 국민들 귀가 문제인가. 국민 귀가 잘못이면 압수수색하겠다"라고 규탄했다.

정 최고위원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길 바란다. 홍준표, 유승민 등 전 동료들의 충고를 새겨들길 바란다"면서 "박 장관 등을 경질하고 국민을 더 혼란에 빠뜨린 김은혜 수석은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방송 장악을 위한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행태가 갈수록 심해진다"며 "이번 발언과 관련해 MBC가 왜곡했다고 권성동 의원이 얘기하더니, 대통령도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하며 결국 MBC를 향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의 성과를 부풀린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같은 외교 참사는 없었다고 할 만큼 논란이 난무한 해외 순방이었다"라며 "윤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캐나다 총리 회담을 마쳤으며 그 성과로 AMAT의 R&D 투자 성과로 자찬했다. 사실 관계를 따져보면 그 기업은 미국 기업이고, 뜬금없이 캐나다 총리 회담 성과로 게시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7월6일 경기도에서 이미 해당 기업과 함께 투자 양해각서까지



체결한 사안"이라며 "새로운 해외 순방 성과라고 할 수 없다. 순방 중 실수를 덮기 위한 성과가 필요하지만 전혀 연관이 없는 회담과 결부시켜 홍보하는 건 우습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도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호들갑 외교, 거품 외교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제와 기업에 전가된다"면서 "무능한 정부 때문에 경제는 파탄나고 국민의 희망마저 꺾이고 있다. 이제라도 대국민 사과를 해 국민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달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도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그리고 대한민국 민생 위기 외에 이제 외교 참사까지 국민들 삶을 옥죄고 있다"며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회의가 종료되기 전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 발의에 관해선 신중론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오보라고 말한 것 같다. 방송으로 전달된 내용이 다르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저희도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며 "들은 사람의 잘못인지, 표현의 잘못인지 정확히 가리고 입장을 내는 게 어떨겠는가. (해임건의안 등을) 감정적으로 말할 부분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저희도 신중하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분석도 과학적으로 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면서 "일부는 말리면, 날리면이라고 하지 않나.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고 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비속어 문제만이 아니다"며 "이번 외교의 전반적 무능과 굴욕, 빈손, 거짓 등이 쌓인 것"이라며 "(이 대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선 국민이 이미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최이슬기자



이재명 "외교 참사, 국민 삶 옥죄다...잘못 바로잡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순방 논란을 겨냥해 "외교 참사까지 국민의 삶을 옥죄다"며 "잘못은 신속하게 바로잡고 바른 방향으로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국정이 매우 어렵고 난맥상이다. 안타깝다"며 "전 세계적 경제 위기, 대한민국 민생 위기에 이어 외교 참사까지 우리 국민의 삶을 옥죄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총성 없는 전쟁이란 외교 현장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야당이 힘을 내 잘못은 신속하게 바로잡고 바른 방향으로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잘못 문제와 관련해선' 여전히 정부 여당의 태도가 진전을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지적하고 "잘못 정정화를 위한 제도를 반드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시작한 지역화폐 정책이 지금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폐지하는, 지원 중단하겠다는 정책을 원내에서 확실히 막아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이 대표는 "경기도는 제 정치적 고향이고 저를 키워주고 품어주신 곳"이라며 "경기도에서 실적을 인정 받아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책임질 기회를 주셨지만 제 부족한 때문에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에 대해 "우리가 약속드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GTX 조기 추진, 그리고 특히 경기 남부·북부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 등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북한의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강력 규탄하는 바"라며 "핵을 선제 공격으로까지 쓸 수 있던 발표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감등과 분열, 대결이 점진하는 걸 방지하는 것도 옳지 않다"며 "한반도 평화가 매우 위중한 상황이기에 군사, 정치적 과감한 해법을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 내고 실천해 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선욱기자

한숙경 도의원 전남도에 영암 KIC 민간위탁 운영 주문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한숙경 의원 (더불어민주당·순천7)은 최근 제365회 제1차 정례회 기업도시 담당관 소관 결산

심사에서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시티(KIC)의 민간위탁 운영을 주문했다.

지난 2010년 개장한 KIC는 국내 최초 F1 규격에 맞춘 서킷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지만 F1 대회가 중단된 이후 매년 쌓이는 적자와 콘텐츠 부족 등으로 인해 지금껏 전남도의 애물단지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남도와 영암군, 전남개발공사는 F1대회

이후 여러 사업을 구상해 각종 대회 유치와 부대시설 조성, 튜닝벨리사업 등을 추진하였지만, 12년이 흐른 지금 딱히 내세울 성과는 없다.

한숙경 의원은 "현재 도에서 주도해 KIC가 위탁운영 하고 있지만, 이 경우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전남도는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구상할 수 있는 민간위탁 운영 방식을 고려

해 KIC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 제364회 임시회 에너지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서 해상풍력 관련 '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이 지역 연관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주문했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추진 경과 등을 보고받은 후 집행부에 격려의 인사말을 전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